

장흥교~장흥대교 공사 지연 원성 높아

주민들 “총체적 관리 감독 소홀한 국토관리청 책임져라” 분노 공사 중지 원청과 하도급간 이윤싸움...고스란히 주민들만 피해

국도23호선 장흥교~장흥대교 구간 도로 확장공사가 지연되면서 도로 주변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흥군이 장흥교 회전교차로에서 장흥대교에 이르는 900m 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를 2015년 9월 총 사업비(국비) 220억 원을 들여 착공했다.



이 도로를 장흥읍 시가지와 통과하는 국도 23호선의 일부 구간으로 장흥 나들목(IC)에서 시작된 4차로와 연결돼 차로수 감소로 인한 병목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장흥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 공사로 인한 교통 안전문제와 소음 먼지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장흥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장흥발전을 위해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빠른 공사 완공을 바랐다.

하지만 올 3월에 완공해야 할 공사가 5월로 연기되며 급기야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를 보고 지금까지 참았던 울분을 토하면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더욱 어처구니없다.

원청과 하도급간 이윤싸움으로 공사 완공시기를 연기하다 급기야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국토관리청

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사업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대응했다.

또한,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생기는 심각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주민들의 목숨까지 빼앗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토관리청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보다는 소름끼친다며 아연 실색했다.

주민들은 얼마나 더 많은 군민의 목숨을 앗아가야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원통해 하고 있다.

현재 3개월간 공사 중단된 구간은 기존 도로에 부대공사를 마무리

하는 작업으로 2개월이면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청과 하도급 업체의 이윤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업체인 A업체관계자는 “하도급 업체 측에서 RC슬라브 특하를 갖고 있는 하도급 업체 측에서 이윤이 많이 남는 공사 85%를 진행하고 나머지 15%는 부대공사로 하수관로, 상수관로 포장 등 부대공사가 손실이 크다며 사업비를 올려주라며 공사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모 건설 전문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든 공사에는 원청과 하청 업체간 계약이 이루어진다. 또한 국

토관리청을 대신해 관리 감독하며 감리단이 있다. 이처럼 발주에서 공사 완공까지 여러 가지 제어 장치가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공사가 이뤄진다”며 “이 모든 책임은 국토관리청과 감리단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언했다.

하도급 업체가 사업비를 추가로 올려주지 않아 소송 준비 중이다. 이처럼 민사소송으로 가면 민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된다. 이것을 안 하도급 업체가 주민들을 볼모로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건설업체 한 관계자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의 숙원 사업인 이번 도로 공사는 추진하는데 10년이 걸렸다.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원청업체와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주민들은 “모든 책임은 국토관리청에서 져야하며 조속한 공사 진행으로 빠른시일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엄포를 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총체적 관리부실을 조장한 국토관리청, 감리단, 원청, 하청업체에 대해 잘 잘못을 따져 더 이상 건설업체를 종사하지 못하게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여수 아파트서 70대 노인 추락사

12일 오후 7시37분께 여주시 미평동 모 아파트에서 A(76·여)씨가 15층 옥상에서 추락한 것을 마을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숨졌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해 왔으며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주서 모발이식 수술 받던 40대 남성 숨져

모발이식 수술을 받던 4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께 남구의 한 개인 병원에서 A(46·무직) 씨가 모발이식 수술을 받다가 심정지 증상을 보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의료진은 수술 전 A 씨에게 수면 마취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유족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 송도 해상서 600t 부선 폭발·화재

12일 여주시 송도 앞 해상에서 예인선에 의해 항해 중이던 600t급 부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없이 자체 진화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께 여주시 송도 남쪽 300m 해상에서 여수선적 부선 H 호(676) 선 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부선 안전 관리 책임자 강 모(54) 씨는 불이 나자 여수항만 VTS를 거쳐 여수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해경구조대 등을 사고현장으로 보냈다.

해경이 10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H 호 선원들에 의해 이미 화재는 진화됐고 해경은 해양오염 및 추가 화재 발생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해경 조사결과 H 호는 벤젠 하역 후 남은 잔량 청소작업을 위해 좌현 5번 탱크에 이동식 펜을 설치해 잔류 가스를 배출하던 중 탱크 안으로 떨어진 펜으로 인해 발생한 불꽃이 폭발과 화재로 이어졌다.

여수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H 호는 11일 오후 8시 30분께 여수화석제품부두에서 벤젠 1600을 하역하고 12일 오전 8시 55분께 광양항 인근 보박지로 이동 중이었다.

여수=송기홍 기자

나주시 농기계 사고로 70대 여성 숨져

11일 오후 1시30분께 나주시 한 밭에서 A(53) 씨가 몰던 트랙터가 작업 중이던 B(78·여) 씨를 덮쳐 B 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밭에서는 A 씨가 트랙터로 고랑을 만들고 있었으며, B 씨를 비롯한 작업자 6명은 고구미술을 심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측면에서 작업 중이던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 4명 잇달아 구속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세경찰서는 13일 A(22)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가상화폐, 향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57명으로 84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30)씨는 지난 1~4월 특별한 직업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9명으로부터 104만원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다.

C(25)씨는 지난해 2~5월 유아용품, 청소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8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D(33)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컴퓨터 부품, 백화점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540만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다.

뉴스

광주 도심서 땅꺼짐 현상 “오수관 균열 추정”

광주 도심의 한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광주시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편의점 앞 횡단보도 쪽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도로는 지름 30cm 깊이 3m 가량 침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노후 오수관

균열로 인해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임시 복구 작업을 벌였으며, 조민간 추가 침하 가능성이 있

는 도로를 들어낸 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시정 모 부서가 2013년께 용봉동 일대에 정화조를 빼내는 사업을 했다”며 “이후 오수관거가 부식돼 물이 흘러나오며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회사 동료 폭행·살해 징역 25년 60대 항소 기각

사소한 이유로 회사 동료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임모(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임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

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범행동기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뒤 티셔츠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가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임 씨에 대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담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8시23분께 전남 한 지역 모 회사 자재창고 안에서 A(당시 53세) 씨와 말다툼 중 A 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술

진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씨가 A 씨를 살해하고 A 씨의 신용카드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기까지 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A 씨는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며 그 가족들이 A 씨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어 A 씨의 사망이 유가족에게 미치는 고통과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주춘정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구묘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구묘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